운칠기삼(運七技三)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장 긍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5~26년 전인가요? 사회 초년병을 채 벗어나지 못했던 필자가 축산 관련업계의 여러분들 자리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저녁 후에 2차를 갔네요. 술을 하면서 고스톱을 치게 되었습니다. 점당 1천원! 함께 한 다른 분들은 큰돈이 아니었지만 당시 필자의 일당이 만원 남짓. 10점만 얻어맞으면 일당이 날아갑니다. 초보자인 필자는 두어 판 만에 지갑이 거의 비어지고 말았습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커졌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다른 분들은 회사의 높으신 분이거나 사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이신데 필자는 한낱 월 25만원짜리 월급쟁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판부터 필자에게는 기적이고 다른 분한테는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자가 마구 돈을 따게 된 것이지요. 소위 개 패를 들면 오히려 더 많이 (돈이) 들어오더라구요.

운칠기삼(運七技三)!

세월이 지나 어느 심리학자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길 "행복의 70%는 타고나는 것이고, 각자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행복은 30%"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30%이니 죽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운칠기삼(運七技三)!

요즘 뜨고 있는 이야기이고 2010년도 휴가 동안 CEO가 필히 읽어야 할 책 10권 중에 1위에 올랐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총재가 그렇게 감명 깊었다고 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 이 책의 저자인 하버드대 철학과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교수는 이

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노력으로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대부분은 노력보다 행운, 그런 재능을 타고난 행운이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은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운이 부족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 한 분의 연봉보다 TV에서 판사 역할을 맡고 있는 주디 판사는 그 보다 100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버드대 입학생의 90%가 좋은 집안 자녀 출신이며,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맏이가 더 성공하는 예가 더 많다. 타고난 재능, 좋은 머리, 건강한 신체나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조차도 자기의 노력이 아닌 운 좋게 타고난 것이다."

운칠기삼(運七技三)!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네요. 이미 작년 초에 구제역이 발생했었기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누구의 잘못인가?' 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운칠기삼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의 70%는(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했을까요?

지금에 와서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태를 종결지을까 하는 것이겠지요. 아마 70%는 운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기온이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세력 정도 등이 그 범주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 고위 층의 어느 분이 이 구제역 사태가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바라는 마음만 가지곤 바이러스를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30%를 '죽을힘을 다하여 제대로' 했을 때 나머지 70%의 운과 합하여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운칠기삼.

능력은 어떨까요? 정말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30%에 대한 것을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가장 큰 부분은 차단방역이겠지요. 이를 위해 우린 통행을 통제하고 소독을 제대로 해야 하겠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겠지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애쓰는 그것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을 때만이 들어먹을 것이니까요.

고위 층의 어느 분이 이 구제역 사태가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바라는 마음만 가지곤 바이러스를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30%를 '죽을힘을 다하여 제대로' 했을 때 나머지 70%의 운과 합하여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운칠기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30%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그 30%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죽을힘을 다해 진정코 간절하게' 한다면 운(運)이라 부르는 나머지 70%는 정녕코 우리의 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 '원(願)한다' 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 중 대표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Want' 와 'Wish' 입니다. 'Want' 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려 하는 목표가 있음을 뜻하고 'Wish' 는 나의 바람이지만 나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행운 또는 신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하장에서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라고 할 때 'Want' 가 아닌 'Wish' 를 씁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이 구제역 사태가 수습되길 바란다(Wish)' 가 아니라 '나는 이 구제역 사태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Want)' 라고 해야겠지요.

운칠기삼.

우리의 최선의 30%가 나머지 70%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100%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 보다는 30%만 책임지는 것이 좀 더 희망적이네요.

30년만이라는 이 강추위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한 축산인의 슬픔과 관계 공무원들의 말할 수 없는 고생에 대해 위로와 감사를 보내며 필자가 맡은 역할을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 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중 하나의 책임이니까요.